http://dx.doi.org/10.14400/JDC.2015.13.7.359

미디어 융합 시대에 청소년 미디어 이용 통제의 효과

이환수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Effect of teenager media usage control in the era of media convergence

Hwan-Soo Lee
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IT Law, Dankook University

요 약 미디어 융합 시대에 청소년들의 미디어 중독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하였고, 부모들은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들의 TV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 및 법률 등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개인화된 미디어 장비가 보편화된 최근의 미디어 환경은 심화되는 중독 현상을 기존의 방법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미디어에 통제가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와 청소년들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884명의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정 내 미디어에 대한 통제 유무는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과도한 통제는 청소년들의 부정 정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 미디어 환경에서는 가정 내의 개별 미디어 이용 통제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고 청소년들의 미디어 중독 예방을 위해 가정이나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청소년, 미디어 융합, 부모 통제, 텔레비젼, 인터넷

Abstract The media addiction of teenagers became a social problem in the era of media convergence. With the national efforts, parents has limited their children's media usage for proper parenting. However, current media environment where personalized media devices such as smartphone and tablet PC are common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the problems of media addiction can be solved with previous approaches. Thus, this study examines how the parental controls to teens' media usage affect their media usage and emo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that analyzed 884 teens' responses, the parental controls did not affect their usage. On the other hand, it was appeared that excessive parental controls stimulated to teens' negative emotions. These results show that parental controls are not longer effective in current media environment, which implies that new efforts from their family or government are required in order to prevent teens' media addiction.

Key Words : Teenager, Media Convergence, Parental Control, TV, Internet

* 이 연구는 2014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Received 26 May 2015, Revised 27 June 2015
Accepted 20 July 2015
Corresponding Author: Hwansoo Lee (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IT Law, Dankook University)
Email: hanslee992@gmail.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TV나 인터넷과 같은 전자미디어 과다 시청이나 접속(이하 이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의존 현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많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 시기의 미디어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심리적 혹은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중독과 관련된 이슈는 학계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사람들은 미디어에 중독되면서 초조함, 불안감, 금단현상, 특정 행동에 대한 집착 등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TV 시청시간의 증가는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학업 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의존, 가치관의 혼란,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악화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 이와 유사하게 인터넷 중독의 경우에도 자기통제력 상실, 감정조절 능력 감소, 대인기피증, 강박감, 편집증 등의 증상을 보일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학습한 정보를 기반으로 모방 범죄 등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2].

청소년들의 미디어 과잉 이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부모들은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들의 TV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불건전한 콘텐츠 접근 제한, PC방 출입 제한, 게임 셧다운제 등 여러 정책 및 법률 등을 통해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적 접근이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이고 나아가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TV 시청의 경우 지나친 제한은 오히려 타 매체의 이용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10], 인터넷 게임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모의 통제가 심할수록 게임 중독 경향이 높아진다는 견해도 존재한다[7].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중독 현상은 사실상 가정환경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의 일방적인 미디어 통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통제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청소년들의 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미디어 이용 통제와 관련한 해외의 연구들은 TV 매체를 중심으로 시청 제한의 유형, 제한의 결정 요인, 제한의 효과 등을 활발히 논의해 왔다. 국내 문헌의 경우에는 TV, 인터넷, 게임의 통제 유형과 관련 변인 등에 대해 실증적 결과를 제시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통제에 따른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에만 집중하고 있고 최근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과도한 통제로 인해 겪게 되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V와 인터넷을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통제 행위가 실제로 청소년들의 이용 시간 감소에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통제의 성격에 따라 청소년들의 부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청소년의 미디어 의존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13년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텔레비전 시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 <Table 1>을 보면 2008년에는 TV 시청 시간이 평일 평균 1시간 45분 정도였으나 2013년에는 2시간 18분으로 증가하였고, 주말 시청 시간이 과거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TV 시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긍정적(20%), 중립적(42.5%), 부정적(34.7%)으로 긍정적 인식에 비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청소년들은 TV를 통해 폭력적 장면(20.6%), 선정적 내용(14.2%), 욕설(11.9%)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의 경우에는 반대로 긍정적(35.6%), 부정적(24.8%)의 순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유해 콘텐츠의 노출 빈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4명 중 1명은 인터넷을 통해 폭력적(25.5%), 선정적(23.0%) 콘텐츠를 쉽게 접하고 있고 욕설(26.1%) 등의 나쁜 언어습관을 배운

다고 응답하였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낮은 윤리 의식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미디어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Table 1〉 TV Watching of Teenagers

Year	TV Watching	
	Weekdays	Weekend
2008	1h 45m	2h 54m
2009	2h 15m	3h 22m
2010	2h 00m	3h 02m
2011	2h 06m	4h 12m
2013	2h 18m	4h 18m

청소년들의 TV 중독은 프로그램 편성, 스트레스와 도피적 시청, 가정환경과 부모의 역할, TV 매체의 특성 등 다차원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9]. 방송사의 상업화 정책에 의해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 치중된 프로그램 편성은 청소년들의 시청 유인효과로 작용하게 되고,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로부터 겪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은 TV에 대한 현실 도피적 시청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 내에서 습관적으로 TV를 켜놓고 시청하는 분위기와 날로 발전하는 TV 화면과 기능의 진화는 청소년들을 TV 시청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의 원인 또한 TV와 유사하게 사회적, 가정적, 개인적인 영역에서 모두 존재한다[16]. 그러나 인터넷 환경은 TV 보다 더 많은 차원에서 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이 존재한다.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으로 인해 자신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현실 세계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상공간에서 이러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며, 가상의 나를 형성하여 이상적인 모습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쉽게 중독될 수 있게 된다. Young(1999)은 인터넷이 청소년들이 평상시에 접근하지 못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집, 학교, PC방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게임 캐릭터나 아바타 등을 육성하면서 통해 실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획득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중독 될 수 있다고 보았다[1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자아 존중감과 자기 통제력이 낮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2]. 자아 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자신을 숨기고 이상적인 모습을 창조할 수 있고 일상에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인터넷 상의 대인관계를 통해 이를 회복하려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중독적인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인지,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기 어려워 인터넷에 중독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특성은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이고, 청소년들의 미디어 중독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개인적 특성을 무시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적 요인을 중독의 직접적 원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2.2 부모 통제의 효과

기존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 왔다[13].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지는 일반적 또는 보편적인 태도를 의미하는데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적, 언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은 물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14]. 기존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지지와 부모통제로 구분하고 있으며, 통제는 다시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세분화하여 접근하고 있다. 행동적 통제는 자녀들의 생활을 물리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을 의미하고, 심리적 통제는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 심리적 수단을 이용한 통제 방법이다[4]. 통제 유형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데, 최근의 견해는 행동적 통제는 규범적 목적 달성에 따른 자녀의 사회화에 목적이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의존을 야기하여 독립심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8].

부모의 양육태도는 미디어 중독 예방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1]. 그러나 양육태도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오히려 미디어 중독을 강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부모의 통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느끼고 도피처로써 인터넷 상의 가상공간을 활용하며, 여기서 얻게 되는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통해 중독적인 사용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5]. 또한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되고자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

의 과도한 양육행동은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고, 지나치게 엄격한 양육방식은 자녀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등 청소년들의 정서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

즉, 앞선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의 미디어 중독에 있어 부모의 통제는 효과적인 방법임과 동시에 중독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는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 통제와 관련한 전통적인 연구에서도 통제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통제하였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성격, 능력, 사회성 등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6].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의 행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필요 이상으로 통제하고 간섭하여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배적이거나 과보호적 양육방식을 취한다[7]. 이러한 양육태도는 TV나 인터넷 등의 미디어 환경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중독 예방을 위한 통제 조치가 오히려 중독을 유발하는 증폭 기제로 작용하는 모순적 상황에 청소년들이 처하도록 만들 수 있다.

최근의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통제의 적절성을 논하기 전에 통제 자체의 근본적 효과에 대해 재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정 내 미디어의 보급률이 증가하게 되고, 다양한 미디어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미디어에 대한 통제권이 가족 구성원 개개인으로 넘어왔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기기의 복합적 이용 행태는 기존 미디어 매체의 대체성을 높이고 있다. TV는 인터넷을 통해 시청 가능한 시대가 되었고 PC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던 인터넷이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개별 미디어에 대한 통제가 과연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을 억제하고 나아가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원적 의문을 제기한다. 앞서 제시한 연구 목적과 기존 연구들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통제 여부에 따른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과 부정 정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통제 범위, 주체, 강도는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과 부정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방법

3.1 연구 데이터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4년 한국미디어패널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 조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동일표본을 대상으로 가구와 개인의 미디어 환경 및 이용 행태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 자료이다. 매년 약 5천여 가구 10,000명 규모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대량 표본을 통한 다양한 실증 연구에 활용이 용이하다. 2012년 이전 조사에서는 연구에서 활용하고자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2013년 데이터만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또한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일부 문항의 응답이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 13세부터 법정 청소년 연령 기준인 만 19세 미만 응답자만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동 조사는 가구별 설문, 개인용 설문, 다이어리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 유형 설문에 동시에 응답한 884명의 청소년 데이터만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활용된 데이터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Research Sample

Category		N	%
Gender	Male	470	53.2%
	Female	414	46.8%
Age	13	143	16.2%
	14	149	16.9%
	15	137	15.5%
	16	151	17.1%
	17	155	17.5%
	18	149	16.9%
TV possession	Yes	859	97.2
	No	25	2.8
Internet subscription	Yes	872	98.6
	No	12	1.4
Total		884	100%

3.2 측정 항목

TV와 인터넷 통제 관련 항목은 가구별 응답 데이터를 활용하여 집계 되었다. 가구 별로 TV와 인터넷 통제 여부, 통제의 방법의 다양성, 통제 주체의 수, 통제의 강도 문항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TV와 인터넷 이용 시간은 3일 동안 매 15분 간격으로 개인의 매체 이용 행위를 조사한 다이어리 응답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다이어리 응답

데이터는 어떤 매체를 통해 무슨 행위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집계하고 있는데, TV 이용 시간의 경우 지상파, 비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데이터 방송을 시청한 행위를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인터넷 이용 시간은 이메일, 채팅, 검색, SNS, 전자상거래 행위를 포함하여 3일 동안의 총 이용 시간을 계산하였다. 청소년들의 부정 정서는 짜증나는, 부정적인, 무기력한 세 변수를 통해 측정되었다.

4. 분석결과

4.1 기술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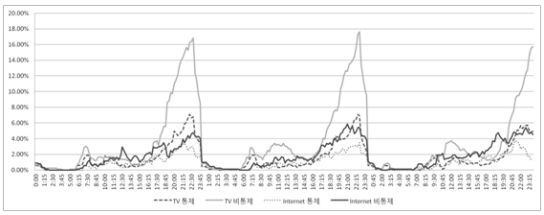
분석 표본의 미디어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TV의 경우 3일 동안 약 215분, 인터넷의 경우에는 119분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 내에서 TV와 인터넷의 사용 제한을 하는 경우는 각 27.7%와 33.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TV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통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시청 시간대나 총 시청 시간에 따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인터넷은 총 인터넷 시간을 통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 유해사이트 차단, 이용 시간대별, PC방 출입 제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TV와 인터넷에 대한 통제 의사 결정권자는 두 경우 모두 1.5명 정도로 아버지나 어머니에 의해서 제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통제 시 강도에 대해서는 평균 4점에 가까워 다소 강제적으로 이용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Table 3>.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TV		Internet	
Use	214.75m		118.90m	
Control	Yes	245(27.7%)	Yes	297(33.6%)
	No	639(72.3%)	No	587(66.4%)
Control means	Channel	62(7.01%)	Site	121(13.69%)
	Total time	89(10.07%)	Total time	161(18.21%)
	Timeslot	100(11.31%)	Timeslot	116(13.12%)
	Program	123(13.91%)	Theme	109(12.33%)
	Self-control	0	PC room	121(13.69%)
	etc.	2(0.23%)	etc.	3(0.34%)
Controller	1.54		1.54	
Intensity	3.77		3.89	

4.2 미디어 이용 시간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3일 동안의 미디어 다이어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대별 이용 비율을 집계하였다. 청소년들의 TV와 인터넷 이용 패턴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오후 4시경부터 이용량이 증가하여 오후 12시경에 이용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 시간대는 오후 10시경으로 TV와 인터넷 모두 이 시간대를 기점으로 급격히 이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V 시청을 통제하는 가정과 통제하지 않는 가정을 비교했을 때 주 시청 시간대에서 약 10% 정도 차이가 있었고, 인터넷의 경우에는 1~2% 정도로 그 차이가 미비하였다.



[Fig. 1] TV Watching and Internet Usage(3 days)

위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체별, 연령별 통제 여부에 따른 미디어 이용 시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증을 수행하였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가 매체별, 연령별로 상이하게 나타나 이를 참고하여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Table 4〉 Control and Media Use Time

	Grade	Control	N	Mean	p
TV	Total	Yes	245	233.51	.142
		No	639	207.56	
	Middle school	Yes	141	259.79	.761
		No	273	267.09	
	High school	Yes	104	197.88	.201
		No	366	163.16	
Internet	Total	Yes	297	127.98	.285
		No	587	114.30	
	Middle school	Yes	163	130.58	.814
		No	251	134.70	
	High school	Yes	134	124.81	.252
		No	336	99.06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TV와 인터넷 모두 가정 내 미디어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용 시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성은 없으나 오히려 통제할 경우에 두 미디어 모두에서 이용량이 더 높았는데 이는 고등학생 그룹에서 나타난 차이로 인한 것을 알 수 있다. 미디어 이용량이 높은 청소년들이 부모들에 의해 이용 제한을 받으면서 현 시점에서 통제를 받지 않는 그룹과의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고등학생 그룹이 오히려 여전히 더 많은 이용량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통제 여부가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Table 5〉 Control Means and Media Use Time

	TV			Internet		
	Total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ntrol Range	.071 (.302)	.046 (.644)	.104 (.278)	.007 (.913)	.019 (.841)	-.006 (.943)
Controller	.011 (.876)	-.065 (.517)	.115 (.247)	.150* (.033)	.019 (.398)	.199* (.033)
Intensity	-.028 (.730)	.001 (.990)	-.148 (.224)	-.117 (.135)	-.126 (.282)	-.116 (.267)
F	.951 (.416)	.195 (.900)	1.280 (.280)	1.792 (.147)	.432 (.731)	2.012 (.111)
R^2	.003	.001	.008	.006	.003	.013
Adjusted R^2	.000	-.006	.002	.003	-.004	.006

가정 내 미디어 통제의 방법과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량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TV의 경우 시청 제한의 방법이 다양화되고 통제의 결정 및 감독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유의한 이용량의 감소를 보이지 않았으며, 통제의 강도가 강해질 때에도 이용 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그룹에서 통제 결정 및 감독자의 수가 많아 질 경우 오히려 이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신뢰수준 95%, 양측검증),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이는 반대의 인과관계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 모두 자녀의 인터넷 사용량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회귀식 자체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두 미디어 모두 통제의 방법이 다양하고 주체의 수가 많으며 통제의 강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Table 5>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4.3 통제와 부정 정서

가정 내 미디어 통제 여부와 방법에 따른 청소년의 부정정서 영향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앞선 분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독립 표본 T 검증과 다중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미디어 통제 여부에 따른 부정정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T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TV와 인터넷의 경우 전체 표본에서는 모두 부정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6>. 그러나 고등학생 그룹의 경우 TV와 인터넷 모두 가정 내 통제가 이루어질 때 부정정서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신뢰수준 95%, 양측검증).

〈Table 6〉 Control and Negative Emotions

	Grade	Control	N	Mean	p
TV	Total	Yes	245	11.27	0.691
		No	639	11.08	
	Middle school	Yes	141	10.64	-.720
		No	273	10.91	
	High school	Yes	104	12.13	2.367
		No	366	11.20	
Internet	Total	Yes	297	11.22	.518
		No	587	11.09	
	Middle school	Yes	163	10.65	-.753
		No	251	10.92	
	High school	Yes	134	11.91	1.961
		No	336	99.06	

통제의 방법과 부정정서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다중 회귀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Table 7>. TV의 경우 전체 그룹과 고등학생 그룹에서 통제 강도가 강해질수록 부정정서 증가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뢰수준 99.9%, 양측검증). 인터넷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그룹에서만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신뢰수준 95%, 양측검증). 흥미롭게도 TV의 경우에 전체와 고등학생 그룹에서 통제 방법이 다양해질수록 부정적 정서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 그룹의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고등학생 표본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경우에도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동일한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아마도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통제 방법으로 과도하게 자녀를 통제하지 않고, 부모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청소년들 스스로 더 합리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Table 7〉 Control Means and Negative Emotions

	TV			Internet		
	Total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ntrol Range	-.173* (.012)	-.042 (.669)	-.327** (.001)	-.066 (.306)	.006 (.950)	-.132 (.141)
Controller	.009 (.895)	.015 (.879)	-.036 (.716)	-.003 (.965)	.022 (.835)	-.029 (.756)
Intensity	.172* (.034)	-.003 (.977)	.438*** (.000)	.090 (.253)	-.053 (.650)	.252* (.016)
F	2.492 (.059)	.155 (.926)	6.651*** (.000)	.664 (.574)	.132 (.941)	3.029* (.029)
R^2	.008	.001	.041	.002	.001	.019
Adjusted R^2	.005	-.006	.035	-.001	-.006	.013

5. 논의 및 결론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 미디어에 대한 통제 유무는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 내에서 통제의 범위 및 강도, 감독자의 수와 미디어 이용량에서도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가정 내 미디어 이용에 대한 통제는 청소년들의 부정적 정서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Van den Bulck & Van den Bergh[10] 연구에서는 TV 시청의 제한은 오히려 타 매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는데, 최근의 미디어 환경은 통제에 따른 매체 이동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도한 통제는 오히려 청소년들의 부정정서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가정 내 미디어에 대한 통제는 보다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주장한 것처럼 부모의 부적절한 통제는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이에 청소년들은 TV나 인터넷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취하려고 하게 되고 미디어 과다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즉, 가정 내 미디어 통제가 오히려 미디어 의존도를 높이는 촉매제가 되어 미디어 중독의 악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가정 내 미디어에 대한 통제는 불건전한 미디어 이용 행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앞선 통계자료에서처럼 청소년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사용에 있어 윤리 의식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윤리 의식 수준의 감소는 가정 내 과도한 통제가 가져온 결과일 수도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나 생활환경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미디어를 통해 해소해 왔으나, 이에 대한 가정 내 통제가 강화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 증가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제한된 시간 내에 불건전하거나 폭력적 콘텐츠의 소비를 통해 해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제 방법에 있어서도 그 방법이 다양할 경우 정서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부모들이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을 제한함에 있어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정 내에서 부모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들 스스로 이의 필요성을 공감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충분히 청소년들과 상의되지 않은 일방적 통제 방식 또한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미디어의 과잉 이용이 자신들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고민을 통해 스스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많은 기존 연구들이 청소년들의 미디어 중독 문제를 중요한 사회 문제로 다루어 왔고, 이의 부적절한 통제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활발히 논의해 왔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 연구들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나, 기존의 단일 미디어 환경과 다른 복합적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통제 효과를 재확인하였다는 점과 대량의 연구 샘플을 활용하여 검증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하여 강압적 통제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향후 청소년들의 자발적 통제 의지와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청소년 미디어 중독에 대한 보다 진일보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ACKNOWLEDGMENTS

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in 2014.

REFERENCES

[1] B. N. Kim and H. I. Choi, “Effects of Study Overprotective Parent’s Raising Attitudeon University Student’s Smartphone-Addiction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 Vol. 29, No. 1, pp. 1-25, 2013.

[2] G. J. Kim and S. H. Suh, “The Research on a Path-model on Adolescent’s Psychological・Environmental Variables Affecting the Internet Addiction”,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7, No. 1, pp. 149-179, 2006.

[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DOI: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research_id=1382000-201300011, 2013

[4] M. K. Chang. “The Influences of the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on their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Emerging Challenges on the Children′s Rights”, Vol. 15, No. 1, pp. 89-108, 2011.

[5] M. K. Jang and E. Y.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Need for Internet Use and Parent Related Variables on Game Addic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 Vol. 19, No. 4, pp. 1125-1138, 2007.

[6] M. Y. Lee and K. W. Kim, “Parents‘ Behavior Control Recognized by Early Adolescence and Locus of Control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Their Friendship”,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2, pp. 193-218, 2011.

[8] H,. K. Huh and H. S. Kim, Adolescent Developmental Psychology, Hakjisa, 2004.

[8] J. A. Choi and H. E. Lee, “Perceived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Depression: The Role of Self-Control and Self-Competence as Mediator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9, No. 1, pp. 295-326, 2008.

[9] J. S. Kang and J. Y. Lee, “Q Methodological Research of Cause and Prevention of Youth TV addiction: Focusing on subjective case of Media education experts and teache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5, No. 1, pp. 79-108, 2011.

[10] J. Van den Bulck and B. Van den Bergh,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al Guidance Patterns on Children’s Media Use: Gender Differences and Media Displacement”,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 44, No. 3, pp. 329~348, 2000.

[11] KOSTAT, 2014 Youth Statistics.

[12] K. S. Young,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Vol. 17, pp. 19-31,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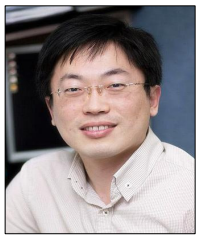
[13] S. D. Lamborn and A. J. Felbab, “Applying ethnic equivalence and cultural values models to African American teen′s perceptions of parents”, Journal of Adolescence, Vol. 26, pp. 605-622, 2003.

[14] W. C. Becker,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1964.

[15] Y. Kim and C. S. Lee,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6, pp. 539-547, 2014.

[16] Y. T. Kim, J. W. Lee, and C. H. Yang, “Influence of Adolescents Living Environment to Internet Addiction”,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Vol. 18, No. 2, pp. 29-55, 2008.

이 환 수(Lee, Hwan Soo)



- 2005년 2월 : 연세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공학 석사)
- 2014년 2월 : KAIST 기술경영학과(공학 박사)
- 2014년 2월 ~ 현재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연구 조교수
- 관심분야 : ICT 보안, 프라이버시, 빅 데이터, 사용자 행동
- E-Mail : hanslee992@gmail.com